

### 지하철 역에서 읽는 '자비의 말씀'

# 감동...참회 "불심 영근다"

서울 1~4호선 115개역사 460개 설치  
풍경소리 제작비용 마련 '발 동동'



◇지하철역에 걸려있는 '자비의 말씀'은 찾아가는 포교를 지향하며,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문화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어머니와 할머니' 울해 예순아홉이신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말이 모시는 거지 실은 살림을 도맡아 하시므로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사는 셈이다. 딸과 손녀의 투정에도 무조건 즐거워하신다. 나이 한에 남편을 떠나 보낼 때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모진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한테는 그나마도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던 행복도 겨우였는지 그만 빠듯한 것이 탈골이 되고 말았다.

김씨는 "제게도 나이드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 글을 읽고나니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심 한번 갖지 않았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하며 낯빛을 붉힌다.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풍경소리의 '자비의 말씀'이 불교계에서 시도한 포교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불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뀌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자비의 말씀' 캠페인은, 찾아가는 포교를 지향하며,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구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자비의 말씀'은 강행복씨의 판화를 바탕으로 한편씩의 짧은 이야기를 담은 형

식으로 제작되는데 시인 장용철, 소설가 김성중, 정찬주, 이우상, 맹란자, 방송작가 오세경씨 등이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제작 원칙은 <백유경> 등 경전에 나오는 예화나 설화를 인용 또는 각색하거나 짧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비의 말씀 게시관은 현재 서울지하철 공사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아 1,2,3,4호선의 115개 지하철역사에 460개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관할인 5,6,7,8호선에도 확산하여 수도권 지역 모든 역사와 전국의 지하철 기차역까지 캠페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총무간사 이용성씨는 "자비의 말씀을 새로 갈아 끼울 때마다 하루 15~20건 정도의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내용이 참 좋다. 어디에 나오든 이야기가, 책이 따로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받아보고 싶다"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풍경소리의 자비의 말씀 캠페인도 대부분 불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살림이 쪼달린다. 풍경소리의 사업에 힘을 보태 주셨다면 몇몇 단체가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앞으로 설치해야 할 게시관 200여개의 제작비용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오랜만에 찾아간 절의 처마 밑, 풍경의 미묘한 떨림이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지하철을 기다리다 우연히 마주하게 된 자비의 말씀은 지친 현대인의 가슴을 적시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는 현대인에게 불교를 가장 효과적이고, 문화적으로 전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대중 곁에 다가서는 새로운 포교의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하철 인권의 사람과 단체,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opia.com)

## 봉정사 극락전 벽화 19점 28년만에 다시 '빛 보다'

현존 최고의 목조건물인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외벽의 벽화 19점이 28년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지난 72년 극락전 해체·보수공사 때 떨어진 뒤 봉정사 창고에 보관돼 오다가 지난해 9월 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6개월간 강화 처리 방식으로 보존 처리한 것. 이들 벽화는 나한도, 비천상, 보살도 등 전통적인 불교 소재와는 달리 신선인 백복(白僕), 적송자(赤松子) 등이 바둑을 두는 모습과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에서 물놀이 하는 천진스러운 동자, 화려한 모란꽃에 꿩과 까치가 노는 화조도, 중국 시인 이태백과 백낙천, 장강과 황석공 등이 민화 기법의 처리 방식으로 보존 처리한 것. 이들은 미술사적으로도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조

살도 등 전통적인 불교 소재와는 달리 신선인 백복(白僕), 적송자(赤松子) 등이 바둑을 두는 모습과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에서 물놀이 하는 천진스러운 동자, 화려한 모란꽃에 꿩과 까치가 노는 화조도, 중국 시인 이태백과 백낙천, 장강과 황석공 등이 민화 기법의 처리 방식으로 보존 처리한 것. 이들은 미술사적으로도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조

선후기 불교와 도교의 습합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존 처리 과정에서 덧칠한 흔적이 있는 벽화들을 적외선 카메라로 정밀 조사한 결과, 극락전 두 번째 보수공사가 있었던 1625년에 그려진 것을 새롭게 밝혔다. 성목(봉통사 주지)스님은 "72년 보수공사 이후 창고에 계속 방치돼 왔으나 다행히 최근 보존처리에 성공해 조만간 전시관을 마련하고 참배객들이 극락전 벽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한-일 문화재 맞교환 하자"

日불화 소유 30대 이색제의

13세기말~14세기초 일본 불화인 '16나한도'(16폭)를 소장하고 있는 한 한국인이 "나한도를 일본에 돌려주는 대신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돌려 받고 싶다"고 주장하며 화제다. 이처럼 이색적인 제안을 하고 나선 사람은 마정렬씨

(38, 대전 가양동). 막씨가 이 불화를 소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원 소유자였던 부인의 사업가 송모씨가 98년 세상을 떠나자 송씨의 부인이 평소 송씨와 절친하게 지내던 막씨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했다. 공복 직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나한도는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불화로, 16폭 각각 가로 49cm, 세로 119cm. 비단에 금가루로 부처님의 16제자를 그렸다. '16나한도'를 살려본 정우택(불교미술사) 박사는 "진품이고 좋은 작품이지만, 일본의 공공박물관이나 사립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와 맞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문화 단신

#### '불교와 문화' 격월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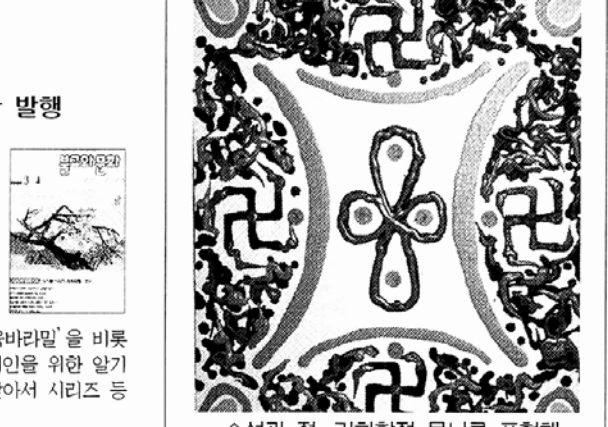
계간 <불교와 문화>(발행인 서돈각)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불교와 문화>는 3·4월호부터 불교 속의 문화, 문화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문화지를 위한 격월간으로 발행됐다. 격월간 발행에 따라 지면도 대폭 개편했다. 2000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을 비롯 인터넷으로 만드는 세계의 불교, 현대인을 위한 알기 쉬운 불교신행,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시리즈 등의 기획물을 마련했다.

이번 <불교와 문화>에는 △김중서(경·김용욱) 선생의 선불교 이해는 정확하다△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인터넷으로 만드는 세계의 불교-세계 불교계의 동향 및 팔리어 불전 전산화 사이트 소개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사자으로 보는 가람의 어제와 오늘-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인물포커스-불교방송 초대사장 장상문 거사, 전 불교신문 사장 이한상 거사 등이 실려 있다.

발행인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디지털 시대 변화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격월간으로 변경했다"며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열린 지면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경북대박물관, 전통문화강좌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한국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고대불교를 중심으로 이뤄질 제1기 강좌 과목은 '한국고대불교사'(동국대 김복순교수), '한국고대불교사상'(동국대 김상현교수), '불상과 불교미술'(국립경주박물관 강우방관장), '불탑과 불교건축'(정영호 前 한국고원대 교수) 등이다. 강의 기간 한차례 현장 답사도 계획하고 있다. 강의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이뤄진다. 원서 접수는 28일까지다. (053)950-6536.



◇선과 점, 기하학적 무늬로 표현한 '만여열반'.

## 한지에 그린 만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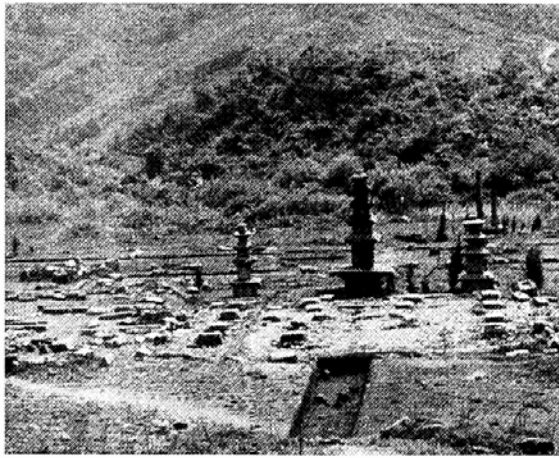
홍미경 개인전...대구 동아갤러리

자애로운 미소의 관음보살이나 동자를 그린 염서를 무료로 나눠주며 '웃으며 삼시디' 캠페인을 전개해 온 불자 화가 홍미경씨(36)가 3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그냥 그리는 그림전'으로 명명된 이번 전시회는 26일까지 대구 동아소풍8층 동아갤러리에서 열린다. 홍씨는 동근 한지 위에 그린 만다라 시리즈 9점을 비롯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만여열반' '우리는 하나'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등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만(만)자와 사람, 점과 선, 기하학적인 무늬 등을 대립 혹은 조화시키면서 차원 높은 우주 의식을 표현해 내고 있다. 2년에 걸쳐 제작한 이들 작품은 예전에 비해 한결 밝은 색감과 명쾌한 구도로 변화된 작가의 의식세계를 드러낸다. 홍씨는 "그림을 보면 작가의 건강이나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밝은 웃음이 끊어지는 그림을 통해 독자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053)745-3087 이윤호 기자

## 개성 영통사터 대대적 발굴

북한 역사학과 고고학계의 관심이 1990년대의 주된 관심사였던 단군조선에서 2000년대 들어 고려로 변하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는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 발굴팀과 함께 개성시 용흥동의 영통사터 발굴에 나섰다. 영통사는 천태종의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이 출가·수도했던 고려시대 대표적 사찰로, 영통사터에는 아직까지 대각국사비가 남아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최근 펴낸 발굴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발굴을 시작한 것은 98년 5월. 이 중 대각국사 의천스님 묘역 발굴이 특히 눈길

을 끈다. 이 묘는 스님을 화장하고 나서 그의 유골을 매장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일제시대 초 이미 발굴되어 별다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굴단은 이 묘역에 제당으로 보이는 건물터를 발굴했다. 북쪽 바위에선 마애불을 발견하기도 했다. 북한이 40년만에 고려 사찰터를 대대적으로 발굴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고고학계는 "북한이 1990년대 단군조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이제 그들이 최초의 통일 왕조라고 일컫는 고려로 관심을 돌린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개성지역 고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오종욱 기자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일본 다이쇼(大正)대학 발굴팀과 함께 추진중인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밭 한마디 미묘한 향이론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갈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운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정보살게 1-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지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범공양론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오계 이야기

일타큰스님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파보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깊은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법보시공 원이시는 분은 출판사로 원력수심시오, 원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요리**      전화 : 587-6612    팩스 : 586-9078